

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결	서 무	간 사	위원장
재			

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		일 시	2017.12.26.(화) 15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김태호, 이호선, 김인준, 이승현, 김남균, 원윤성 (이상 7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없음		
의 제	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		

## ◎ 회의내용

### 1. 개회선언

#### 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소개함.
- 오늘 회의는 2018학년도 학부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를 안건으로 함. 1월 첫째 주가 학부 외국인 신입생 및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임에 따라 다소 촉박한 일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람.

### 2. 외부 전문가 위원 추천 관련 논의

#### ■ 위원장

- 첫 회의인 만큼 시작에 앞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우들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올바른 등록금 책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현재 총학생회장이 휴학 상태임에 따라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. 그러나 총학생회장이 2018학년도에 복학을 약속하였고 대학 본부에서도 등심위 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임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어 다행임.

■ 위원장

- 총학생회장은 2018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총학생회장은 2018학년도 1학기에 복학할 것이라고 답변함.
- 본 안건 심의에 앞서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학생 측에서도 외부 전문가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.
-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는 학생 측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학교 측과의 형평성을 위해 학생 측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추천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후보군의 풀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며, 항상 학생 측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였음.
- 학교 측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했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한 적은 없으며 중립을 지켜왔음.
- 외부위원의 위촉 방식을 개별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총학생회 차원에서 추천할 수는 있겠지만 등심위 회의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관례적으로 학교 측에서만 외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여 위촉한 것은 추천에 있어서 학교 측과 학생 측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 규정을 보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임.

■ 위원장

- 학생 측 대표가 제안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였음. 2019학년도 등심위 구성 시 총학생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위원 후보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며 학교 측에서도 후보를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.

3.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

■ 위원장

- 학부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자료로 학부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구체적인 사유와 인상 금액을 어디에 지출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육비 환원율이 160%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미 등록금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,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예산 소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.
- 그러나 학부 등록금은 수년간 인하 또는 동결이며 2018년부터는 입학금까지 인하해야하는 상황임.
- 우리 대학은 서울의 주요 대학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낮은 편이며 이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도 마찬가지임. 우리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수준은 타 대학에 뒤지지 않으므로 낮은 등록금을 책정할 이유가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수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-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수익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이유는 우리 대학의 국제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 확충에 있음. 현재 외국인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상대적으

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.

- 등록금만 인상하고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지원하지 않음. 우리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은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임.
- 국내 학생의 피해를 감수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미리 기숙사를 확보하는 것도 외국인 학생에 대한 혜택의 한 사례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학교의 재정 확충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혜택으로 인식하는 것은 모순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미국 주립대의 경우 다른 주에서 온 학생에게는 비싼 등록금을 책정함. 그 이유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학생은 세금 등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임. 따라서 실질적인 형평의 관점에서 외국 유학생이 더 많은 수업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불과 6개월 전에 최저임금, 물가 인상 등의 사유로 인상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학교 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 의문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6개월 전에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타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대학의 교육 서비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.
- 타 대학의 법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학 법인의 전입금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함. 대학 법인이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인의 수익 내에서 최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에서 수익적인 측면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.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학교와 법인이 충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법인이 대학을 설립하면 지속적으로 학교에 돈을 전입해야하며 학교에서 받

생하는 수입을 법인으로 가져갈 수 없는 구조임. 우리나라의 사학 법인은 대부분  
우국지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지원 없이 법적 기준을 맞  
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법인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체 교비회계 규모에서 법인의 전입  
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인이 최대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 
것인지 의문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비율상으로는 적게 보일 수 있으나 타 대학과 비교하여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.
-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대학은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금보다 외국인  
학생 등록금을 더 인상할 여지가 있음.
- 외국인 등록금 인상분은 학교 전체 예산에 투입되고 결국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 
쓰이게 되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우리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 
자료 없이 회의 발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예산 관련 자료도 필요함. 외국  
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다면 학생 측에서도 무조건 반대할 이유  
는 없음.
-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별도로 책정하면서 지출 측면에서는 학교  
전체 예산에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외국인 학생 등록금 책정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며 모든 등록금 수입은 대학 전  
체 예산에 포함되어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외국인 등록금 인상 뿐만 아니라 향후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목  
록을 작성하였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림.
- 2017학년도 2학기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새로운 프로  
그램을 진행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이 반드시 특정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

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임.

- 경력개발센터가 확대 개편되어 외국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인력이 필요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감축 계획은 어떻게 되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에서는 매년 20%씩 4년 간 또는 16%씩 5년간 입학금 감축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대학은 4년 또는 5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. 2018년 1월말까지 결정해야하는 사안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입학금 감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입학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재정지원은 없으며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과 연계될 것으로 보임.

■ 위원장

- 첫 회의는 사전회의 성격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학부 외국인 및 대학원 신입생 고지서 발송 일정으로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음.
- 학생 측에서 요청한 자료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학교 측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람.
- 금주 내로 학부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책정이 가능할 것인지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재무팀 등 실무부서에서 고지서 발송 준비 작업을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검토하고 다시 회의를 개최하면 다소 시일이 촉박할 것으로 보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고지서 발행도 가능한 것 아닌지 질의함.

■ 위원장

- 학생 측에서 허락해주시면 가고지서 발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. 가고지서를 발송

하게 되면 등심위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음.

= 잠시 정회를 한 후, 회의를 속개함. =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금주 내로 학부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먼저 가고지서를 발송하고 1월 2일에 다시 논의하는 것을 제안 드림.

■ 위원장

- 가고지서에서 명시할 인상률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학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 내에서 1% 정도로 정하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 5%로 가고지하는 것을 제안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최종 등록금이 가고지서 인상률 보다 낮게 결정되면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인상률을 낮게 책정하고 향후에 인상분만큼 추가로 받는 것은 어떤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차액을 반환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함. 가고지서에는 최종 등록금 결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원 등록금의 가고지서 인상률은 1%로 하되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가고지서 인상율은 학생 측에서 좀 더 회의를 한 후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률은 5%를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타 대학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대학도 이에 발맞추는 것이 필요함.

- 외국인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내일까지 전달하겠으며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늦어도 12월 28일 목요일 정오까지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.

#### 4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8.1.2.(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정하고,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7. 12. 26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



위원장

정승



위원

김인



위원

이희



위원

이충



위원

김남

위원

원

원

위원

김태호



